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¹⁾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김윤희 부연구위원
정윤미 전문연구위원

요약

- 조사목적** ▶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학술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
- 조사대상** ▶ 원패널 :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초4 코호트 2,607명), 중학교 1학년(중1 코호트 2,590명)
▶ 원패널 보호자 : 5,000여명(각 코호트별 2,500여명)
▶ 원패널 형제자매 : 1,700~1,800여명(각 코호트별 850~950여명)
- 조사내용** ▶ 원패널 및 패널(청소년)의 형제자매 :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 환경 등) / 스페셜 모듈(3차 조사 : 재난안전의식, 4차 조사 : 정서인식 역량, 5차 조사 : 진로준비도, 6차 조사 : 학교폭력 등)
▶ 보호자 :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스페셜 모듈(3차 조사 : 재난안전의식, 4차 조사 : 정서인식 역량, 5차 조사 : 진로준비도, 6차 조사 : 학교폭력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간** ▶ 매년 8월 ~ 11월

1) 본 블루노트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년도 고유과제 보고서인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와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²⁾ 제5차년도(2022년) 주요 조사결과

KCYPS 2018 코호트별 · 연차별 유지율

- 원패널 유지율
 - KCYPS 2018 5차년도(2022년)의 초4 코호트 유지율은 88.6%, 중1 코호트 유지율은 86.9%
 - 초4코호트의 경우 전년도 대비 패널 유지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탈 패널이 다시 패널조사에 참여하여 유지율이 증가
- 보호자 유지율 및 형제자매 조사 성공률
 - 초4 코호트 보호자 패널 유지율은 88.6%, 중1 코호트 보호자 패널 유지율은 86.9%
 - 형제자매의 목표 대비 조사 성공률은 초4 코호트 90.3%, 중1 코호트는 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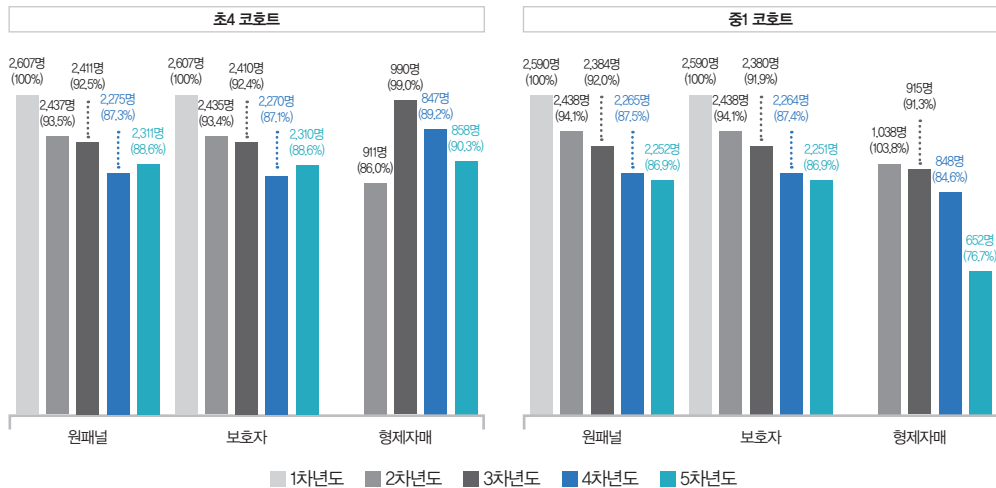


그림 1 KCYPS 2018 조사 코호트별 · 연도별 패널 유지율

KCYPS 2018 코호트별 · 연차별 조사실패 사유

- KCYPS 2018 패널 구축 후 5차년도까지 코호트 및 연차별 조사 실패 사유
 - 강력거절이 80~9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9년과 2020년 초4 코호트에서 연락두절이 중1 코호트보다 높았으나, 2021년과 2022년은 중1 코호트의 연락두절 비율이 초4 코호트보다 높음.
- 코로나19와 급급 전환 시기
 - 2021년 초4 코호트의 강력거절로 인한 조사 실패 사유가 11.0%p로 급증, 이는 코로나의 영향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바뀌는 시기의 영향으로 강력거절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됨.

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표 1 KCYPs 2018 초4 및 중1 코호트 연차별 조사실패 사유

조사실패 사유 연도 / 코호트		강력거절		연락두절		추적실패(전학 등)		당해 조사 거절 (개인사정 등)		계	
		N	%	N	%	N	%	N	%	N	%
2019년	초4 코호트	137	80.6	20	11.8	6	3.5	7	4.2	170	100.0
	중1 코호트	123	80.9	13	8.6	4	2.6	12	7.9	152	100.0
2020년	초4 코호트	161	82.1	22	11.2	7	3.6	6	3.1	196	100.0
	중1 코호트	176	85.4	15	7.3	6	2.9	9	4.4	206	100.0
2021년	초4 코호트	309	93.1	12	3.6	4	1.2	7	2.1	332	100.0
	중1 코호트	296	91.1	15	4.6	3	0.9	11	3.4	325	100.0
2022년	초4 코호트	275	92.9	9	3.0	1	0.3	11	3.7	296	100.0
	중1 코호트	314	92.9	13	3.8	1	0.3	10	3.0	338	100.0

2 데이터분석 : 진로준비도의 교급별·시대별 경향 및 잠재유형 관련 요인 분석

■ 진로준비도의 교급별, 시대별 코호트 차이 분석

- 교급 및 시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특성을 파악하고자, 교급별(KCYPs 2018 중학생 및 고등학생), 시대별(KYPs 2003, KCYPs 2018) 진로준비도의 코호트 차이를 분석함.
- 교급별 코호트 분석 주요 결과
 - 중·고등학생 대부분 4년제 대학교 졸업 희망, 희망직업 선택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수입(임금)”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외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함.
 - 중·고등학생 모두 진로준비활동 중 진로심리검사 및 적성검사에 대한 참여경험이 가장 많음.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관련 상담 등 진로준비 활동 참여빈도 및 도움정도는 고등학생이 더 높았음.
- 시대별 코호트 분석 주요 결과
 - 최근의 고등학생(2022년)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진 반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늘어남.
 - 직업가치는 2022년 고등학생은 수입(임금), 2006년 고등학생은 어울려 일함에 우선순위를 둠.
 - 진로탐색 영역의 진로준비활동은 모두 진로심리검사 및 적성검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도움이 된 정도는 최근에 더 높아짐.

■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유형별 개인·환경 특성 차이 분석 및 예측요인 탐색

- 교육포부와 직업달성포부에 따른 진로준비도의 잠재집단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진로준비도의 유형에 따른 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의 차이와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탐색함.
-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주요 결과
 - 중·고등학생 모두 “진학 무관심형(교육포부 미결정, 낮은 직업달성포부), 진학 관심형(높은 교육포부, 희망직업 미결정), 진로 관심형(높은 교육포부, 높은 직업달성포부)”으로 분류됨.
- 진로준비도 유형별 개인·환경 특성 차이 분석 주요 결과
 - 개인(학교에서의 개인변인 및 사회정서적 변인, 월평균 가구소득), 가정(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수도권, 친구와 교사 관계), 그리고 진로 준비도 구성 요인(진로적응력 등)에서 전반적으로 진로 관심형이 가장 우수한 수준, 진학 무관심형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진로준비도 유형별 예측요인 탐색
 - [개인특성] 중·고등학생의 부정적 사회정서 측면이 높을수록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음.
 - [가정특성] 중·고등학생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음.

- [학교특성] 수도권에 위치, 교사와 긍정적 관계일수록 진로 관심형일 가능성이 높았음.
- [진로특성] 중·고등학생 모두 사회적 차원 직업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진로적응력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어머니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가 높고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음.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중학생에게만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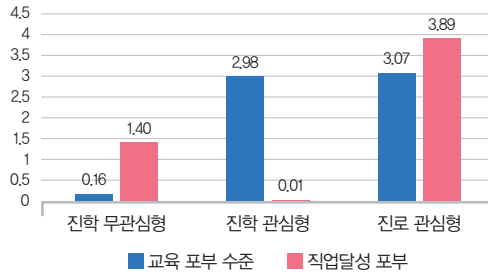


그림 2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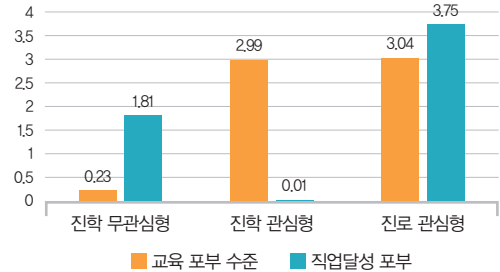


그림 3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 시사점

- [개인특성]
 - 고등학교 시기 이전부터 청소년들의 체계적 진로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학업적 측면 이외에 청소년의 심리자원을 위한 지원이 진로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음.
 - 진학에 무관심한 청소년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학업 성취 및 학업 열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진로준비도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가정특성]
 - 저소득층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 진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며, 진로교육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
 -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 전반보다는 교육 및 진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학부모들에게도 “대입입시”이외에 직업적인 탐색과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학교특성]
 - 교사는 청소년의 교육포부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진학 이외에 진로 탐색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개인이 진로와 관련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기회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므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균형적인 교육정책을 제공해야함.
- [진로특성]
 - 청소년이 직업가치를 다면적으로 고려하고 진로 관심, 호기심, 자신감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포부 뿐만 아니라 희망 직업에 대한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을 시사함.
 -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탐색을 위한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줌.
 -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진로경험이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경험의 양보다는 질의 중요성을 보여줌.

■ 정책 제언

-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위해 1)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2) 경험 중심 진로체험의 내실화, 3)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4)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제언함.

3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주요결과

■ 유지조사 목적

- 배경
 - 2016년 조사가 종료된 KCYPs 2010의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과의 접촉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를 2017년부터 매년 진행(2022년 6차 조사 실시)
- 목적
 - 향후 후속 연구나 조사개발 등을 통해 이들의 청소년기 조사 데이터와 결합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 및 정책적 개입들이 성인기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

■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6차 유지조사(2022년) 주요 결과

- 조사방법 및 유지율
 - 2022년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6차 유지조사(26세 해당)'는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로 진행, 2010년 당시 중1 원패널 2,351명 중 1,656명(70.4%)과의 접촉 또는 연락에 성공, 설문조사에는 1,364명이 참여, 이는 접촉에 성공한 패널의 82.4%에 해당하고, 전체 원패널 2,351명의 58.0%에 해당
- 현재 신분 상황
 - 패널의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제1차 유지조사 77.7%,³⁾ → 제2차⁴⁾ 69.8%⁵⁾ → 제3차 56.4% → 제4차 45.9% → 제5차 32.4% → 제6차 조사에서는 18.7%로 감소 - '일을 하는 경우'는 1차 유지조사 11.5%,⁶⁾ → 제2차 22.6%,⁷⁾ → 제3차 30.2% → 제4차 36.9% → 제5차 49.5% → 제6차 62.2%로 매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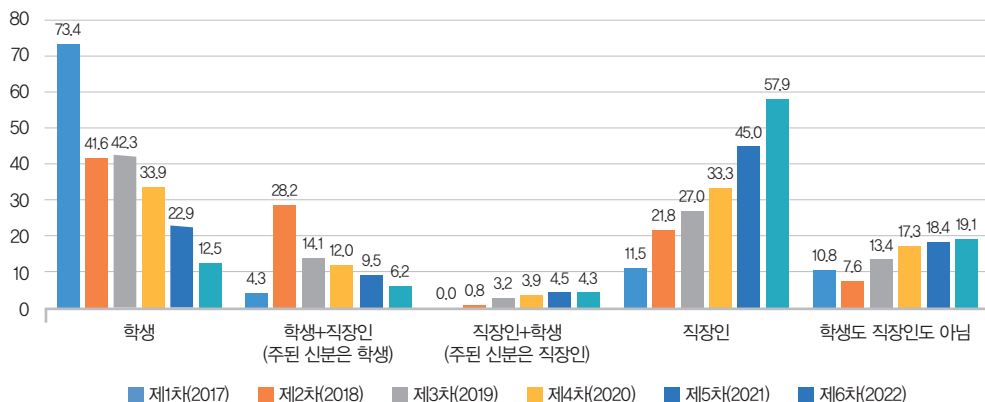


그림 4 현재의 신분 상황

3)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있다'의 응답 합계.

4) 2차 유지조사부터는 제1차 유지조사의 문항 중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있다'를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주된 신분은 학생)'와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주된 신분은 직장인)'로 구분하여 조사함.

5)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와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의 응답 합계.

6) '일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는 다니지 않고 있다'의 응답.

7) '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와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의 응답 합계.

● 현재 삶의 만족도 변화

- 패널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특정하였으며(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매우 만족한다) 제1차는 3.69 → 제2차 3.73 → 제3차 3.49 → 제4차 3.46 → 제5차 3.44 → 제6차 3.48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2차년도 이후 5차년도까지 현재 삶의 만족도는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6차년도에 다시 소폭으로 증가함. 전반적으로 남자의 삶의 만족도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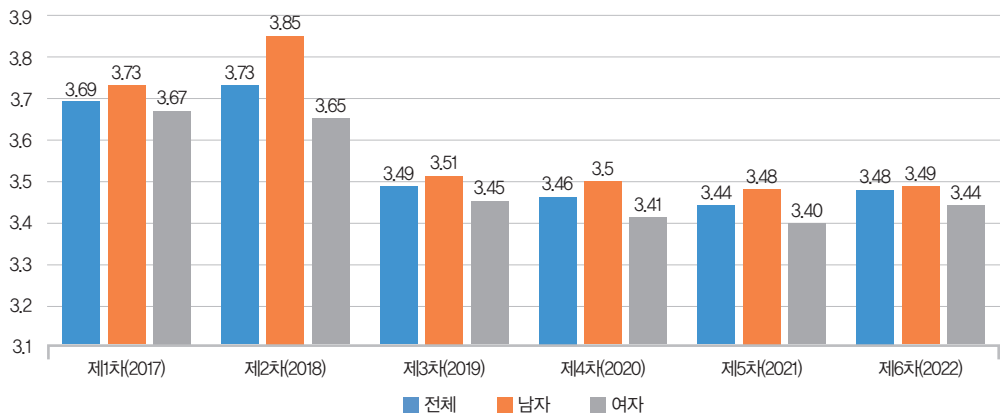


그림 5 현재 삶의 만족도

● 주관적 웰빙

- 주관적 웰빙은 크게 행복, 걱정, 우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0~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하고, 걱정이 많고, 우울감이 높고,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전체적으로 행복은 10점 만점에 6.68, 걱정은 5.23, 우울은 3.48,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은 6.28,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수준은 6.42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여자의 우울 정도가 남자보다 높고, 하고 있는 일의 가치는 남자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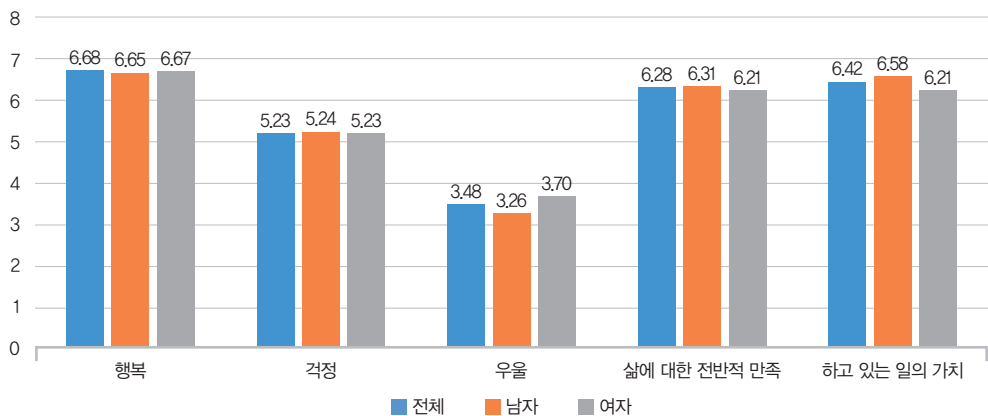


그림 6 주관적 웰빙

4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

■ 데이터 활용 실적

- 전체 활용실적
 -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4,026편의 각종 논문과 보고서 등에서 패널 데이터가 활용됨.
- 기수별 활용실적
 - KYPS 2003의 데이터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총 1,139편, KCYPS 2010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2,067편, KCYPS 2018 데이터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820편의 활용실적을 보임.

표 2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2004년~2022년)

구분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계		4,026	100.0	1,139	28.3	2,067	51.3	820	20.4
학위	박사	160	4.0	46	1.1	90	2.2	24	0.6
논문	석사	571	14.2	133	3.3	325	8.1	113	2.8
학술지논문		2,496	62.0	713	17.7	1,271	31.6	512	12.7
학술대회 발표논문		650	16.1	198	4.9	296	7.4	156	3.9
보고서/단행본		149	3.7	49	1.2	85	2.1	15	0.4

*2023년 9월 기준 집계치임

● 연도별 활용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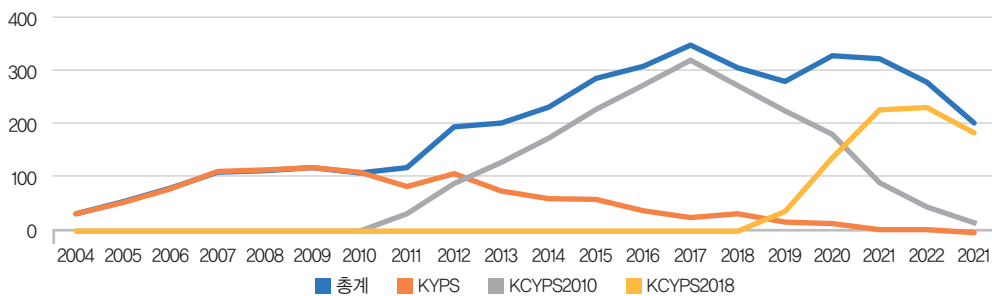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패널 기수별 데이터 활용 전체 건수 변화

■ 데이터 활용 학술논문 세부 분석 결과

- 학술지 논문 중 2023년 4월까지 파악 된 2,206편에 대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https://www.kci.go.kr>)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 논문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

표 3 기수별 데이터 활용 학술지 논문 구성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2,206	100.0	633	28.7	1,201	54.4	372	16.9

- 학술논문에서 1차적으로 활용된 패널조사 기수별 교급 코호트 구성을 살펴 본 결과 중등 코호트 활용도가 초등 코호트보다 높게 나타남. 단, 2기 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코호트가 2개(초1, 초4)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용 정도가 중등 코호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활용된 데이터의 교급 및 학년 구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학교 1, 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음. 초등학교 1~3학년은 KCYPs 2010에서만 조사가 되었으며 해당 학년에 대한 데이터 활용 실적은 낮게 나타남.

표 4 기수별 활용 데이터 패널의 교급 코호트 (개)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초등 코호트	중등 코호트	초등 코호트	중등 코호트	초등 코호트	중등 코호트	초등 코호트	중등 코호트
862	1,332	204	428	551	641	107	263

- 데이터 활용 전체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는 논문당 17.41회였으며, 최소 0회에서 최대 249회까지 그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간된 년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1기 조사를 활용한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28.22회였고, 제2기의 경우는 15.37회, 제3기는 5.63회

표 5 기수별 데이터 활용 논문 피인용 횟수 (평균)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7.41	23.794	28.22	30.017	15.37	20.826	5.63	8.652

- 본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을 종단과 횡단분석으로 구분하여 보면 종단분석(44.7%)보다 횡단분석(55.3%) 활용도가 높음. 1기는 종단분석이 60.3%로 다른 기수보다 종단분석 활용율이 높음. 3기의 경우 4차조사까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기수보다 횡단분석(81.7%) 비율이 높음.

표 5 기수별 데이터 활용 방법별 논문 수

구분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계	2,206	100.0	633	28.7	1,201	54.4	372	16.9
종단분석	987	44.7	382	60.3	537	44.7	68	18.3
횡단분석	1,219	55.3	251	39.7	664	55.3	304	81.7